

지우개노트

작품기획서

기획의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2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고 한다.
그럼 2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나일까?
다른 내가 아니라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에 꽤 오랜 시간 고민했었다.
나름의 답은 기억이었다.

내가 다른 누군가와 다르다는 것은 신체적인 특징 외에도 '기억'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모 만화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진정 죽는다는 것은 심장이 멈추거나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이번 작품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나와 가족, 친구, 형과 동생, 남편과 아내 등등 같은 시간과 사건을 겪은 기억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우리'라고 칭할 수 있는
그 무엇이지 않을까 한다.

작품설명

엄마의 잔소리에 겨우 눈을 뜬 푸름은 허둥지둥 학교로 달려가지만 지각을 하게 된다. 며칠째 계속 지각을 하는 푸름이에게 내일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말을 하는 선생님.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지만 기운이 없는 푸름은 거절을 한다. 그 모습에 친구들은 이상함을 느낀다.

푸름이는 누워 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요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길에 떨어진 '지우개 노트'를 우연히 발견한 푸름. 그 노트에 자신의 기억을 적으면 그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즘 지각했던 일을 적는 푸름.

다음 날. 선생님은 푸름이가 요즘에 지각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는 푸름은 너무 신났다.

'지우개 노트'의 힘을 알게 된 푸름은 평소 자신이 실수하거나 후회하고 있던 일들을 적기 시작한다.

지우개노트

잘 때 마다 생각나는 친구에게 들었던 무서운 얘기. 친구들과의 축구 시합에서 자신의 실수로 졌던 일들. 그렇게 푸름이는 점점 기억이 사라질수록 훌가분해져 잠도 잘 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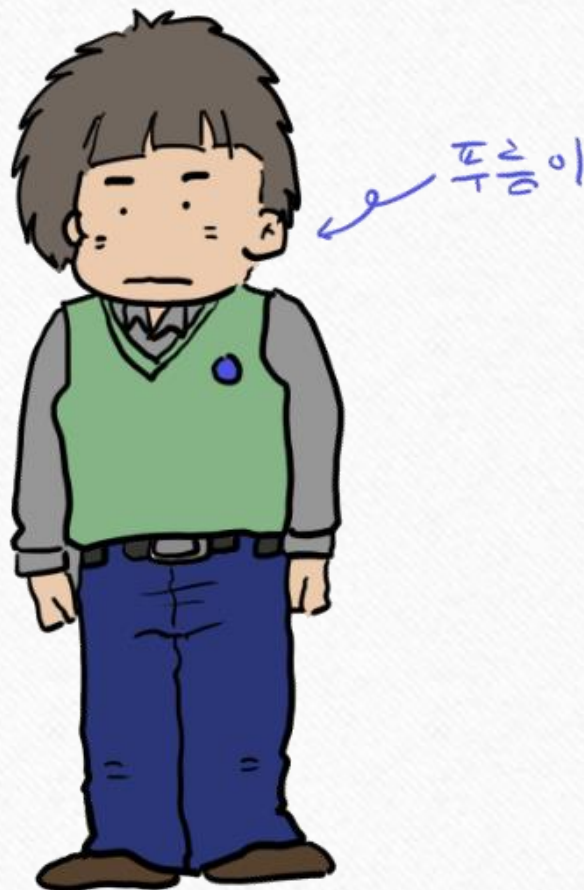
신나게 쓰던 ‘지우개 노트’도 마지막 장만 남았다. 자기 전 노트를 펴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억을 쓸까 고민을 하는 푸름이. 그때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낌. 몇 년 전 사고로 돌아 올 수 없게 된 누나의 사진을 보고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푸름이는 누나와의 기억을 적기로 마음을 먹는다.

누나와 같이 놀이동산에 갔던 일. 가족 모두 물놀이 갔다가 모기만 엄청 물리고 왔던 기억.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던 푸름이를 학교 까지 데리러 와 줬던 일들. 푸름이는 누나와의 추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누나의 그런 모습을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누나는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지우개 노트’의 마지막 장을 쓰지 않고 남겨둔다.

다음 날. 오늘 따라 활기가 넘치는 엄마. 누나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푸름이와 같이 마트에 간다. 평소 누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린 조출하지만 따뜻한 생일상. 그 앞에서 엄마와 푸름이는 누나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누나를 계속 기억한다.



캐릭터



주연 **김푸름** (17세)

개구장이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른스러운 성격

몇년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에 대한 기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말이라면 하늘처럼 따르는 착한 인물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공부는 썩 잘하는 편은 아닌...

평소에도 약간 게으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음...

캐릭터



주연 **김아름** (17세)

푸름이 누나.

2년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남.

공부도 잘 했고, 동생 푸름이를 잘 챙겨주고 해달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천사표.

얼굴도 이뻐서 푸름이 친구들도 좋아했을정도...

캐릭터



주연 **이수경** (푸름이 엄마, 45세)

푸름이엄마.

일반 가정주부이며 몇년전 딸 아름이를 떠나보낸 아픔을 억누르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나를 잃은 푸름이에게 두 배 이상으로 잘 해주려는 엄마이며

공부보다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자상하지만 흑독할때는 인정사정 없이 끝장을 보는 성격

캐릭터



유리



훈이



철수



맹구

조연 **이유리/훈이/철수/맹구** (푸름이 친구들)

유리 : 아름이를 몰래 짝사랑하는 반 친구

훈이 : 아름이의 초등학교때부터 친구

철수 : 아름이와 같은 반 친구이며 공부도 잘함, 아름이 누나를 짝사랑

맹구 : 유리를 짝사랑하는 아름이 친구